

나주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맞춤형 사업 '눈길'

노인·장애인·중장년 전 세대별 보행 보조기, 밀반찬 지원 등 1인 가구 실태 전수조사 돌입 정비단 주거환경 개선 봉사도

나주시가 관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주민 밀착형 복지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21일 나주시에 따르면 빛가람동지협의체는 최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50명을 대상으로 '보행 보조 네발 지팡이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네발 지팡이 지원은 고령으로 균형 감각이 떨어진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사업으로, 낡고 무거운 지팡이를 사용하던 어르신들에게 보행 보조기를 지원해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

금남동지협의체는 금남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중장년 1인 가구 전수조사 발대식'을 열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본격적인 실태 조사에 돌입했다.

조사 대상은 50세 이상 64세 이하의 중장년 1인 가구 480여명으로, 오는 7월 말까지 생활 실태, 사회적 고립도, 복지 수요 등을 면밀히 파악할 계획이다. 전수조사를 통해 취약 가구로 분류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공적 보조 및 민간 자원과의 연계로 신속히 추진하고 향후 지역 맞춤형 복지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다도면에서는 암정1리 주민 김일수씨와 함께 지적장애인 가정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봉사에 나섰다. 오랜 시간 방치돼 외벽이 바래고 훼손됐던 주택은 김씨의 정성 어린 페인트칠로 다시 생기를 되찾았다.

공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독거노인 및 저소득 가구를 위해 '희망의 건강 밥상' 밀반찬 지원 사업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올해도 지

역 내 30가구를 대상으로 월 2회 정성껏 조리한 밀반찬을 직접 전달하고 가정에 방문해 안부를 살피는 등 단순한 식료품 지원을 넘어 정서적 돌봄까지 함께하고 있다.

문평면지협의체는 대한적십자봉사회와 손을 잡고 정신건강 문제와 지적장애로 인해 주거 관리가 어려운 취약세대를 위한 대대적인 주거환경 개선 활동을 전개했다. 2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함께 참여해 집 안 청소는 물론 창문과 바닥 정리, 생활 폐기물 처리까지 말끔히 진행했으며 중고 세탁기와 온수기 등 실생활에 꼭 필요한 가전제품도 기증했다.

세지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말굽이 정비단'을 운영하며 위생 환경 개선이 시급한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 활동을 전개했다. 장애로 인해 거주지 정리에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와 우울증을 앓는 중장년 부부 가정을 방문해 청소와 정리, 마당 환경 정비, 생활용품 전달까지 폭넓게 지원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각 지사협과 주민들의 따뜻한 참여가 복지의 뿌리를 튼튼히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해 복지 사각지대 없는 나주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나주=김용의 기자



나주시농업기술센터 직원이 관내 양파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비배 관리 등 현장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나주시, 양파 영농현장 농업기술 컨설팅

나주시가 양파연구회(농가)를 대상으로 '2025 양파 영농현장 농업기술컨설팅'을 실시했다.

21일 나주시에 따르면 최근에 실시된 농업기술 컨설팅은 농촌진흥청 고객지원담당관실과 나주시가 협력해 진행됐다.

이번 컨설팅은 정식 지면에 따른 비배

관리, 연작 피해 등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영농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맞춤형 현장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원인 규명과 함께 대책을 제시하고자 마련됐으며 작물의 재배기술, 병해충과 토양관리, 농약 안전 사용 등 농작물 생육에 꼭 필요한 핵심기술 중심으로 전개됐다.

특히 양파는 다시면, 문평면 등지에서

전력적으로 육성하는 품목으로, 주로 구가 큰 중만생종을 재배하는 특징에 따라 품질 고급화 및 기술 발전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최준옥 나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작목별 영농현장 컨설팅을 통해 양파 농가들이 겪고 있는 영농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며 "작물 생육에 필요한 맞춤형 기술교육도 단계별로 실시해 최고 품질의 양파 생산 전담기를 양성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나주=김용의 기자



지난 18일 나주시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필리핀 팜팡가주 산루이스시에서 온 계절근로자 71명에 대한 환영식을 열었다.

나주시 제공

나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500명 투입

나주시가 농촌의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21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필리핀 팜팡가주 산루이스시에서 온 계절근로자 71명에 대한 환영식을 개최했다.

환영식에서는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계절근로자 준수 사항 교육과 더불어 전남인권센터 주관의 인권 강화교육이 함께 진행됐다. 이들은 공공형 계절근로자사업을 운영하는 나주배원농협을 비롯한 고용 농가에 배치돼 본격적인 농업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에 입국한 근로자들은 지난해 나주

시와 필리핀 산루이스시 간 업무협약에 따라 지난 1월 엄격한 자격기준과 교육과정을 거쳐 선발된 근로자와 국내에서 계절 근로를 경험한 숙련 인력으로 구성된 농업 현장에 빠르게 적응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나주시는 71명의 필리핀 계절근로자 외에도 결혼이민자 가족을 지속적으로 유입시켜 이달 말까지 총 500명 이상의 계절근로자를 농업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윤병태나주시장은 "필리핀 근로자분들이 나주 농촌을 위해 성실히 일하고 숙련된 농업 인력으로 자리 잡아 내년에도 다시 함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나주=김용의 기자

미용업 기존영업자 대상 위생교육 실시

나주시는 최근 미용업 기존영업자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이정실(사)대한미용사중앙회 서부지회 나주시부장을 비롯해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중위생관리 법령 해설, 미용 기능장 신기술 실습강의 등 사례 중심으로 이뤄졌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미용업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올해 시 예산으로 앞치마와 수건 등 기본 위생물품을 지원했다"며 "앞으로도 현장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존 공중위생영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에 따라 매년 3시간 온라인 또는 집합교육으로 이수해야 하며 신규 영업자는 영업 개시 전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영업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미수로 시 관계 법령에 의거 과태료 6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나주=조대봉 기자

'제5기 여성친화 시민참여단' 활동 본격화

정책 제안·현장 모니터링 등

나주시는 성공적인 여성친화도시 조성 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에 앞장설 '제5기 여성친화 시민참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발대식에는 공개모집과 읍면동장 추천을 통해 위촉한 여성친화 시민참여단원이 참석했으며 제4기 우수활동자에 대한 시

정책 제안, 연작 피해 등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영농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맞춤형 현장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원인 규명과 함께 대책을 제시하고자 마련됐으며 작물의 재배기술, 병해충과 토양관리, 농약 안전 사용 등 농작물 생육에 꼭 필요한 핵심기술 중심으로 전개됐다.

특히 양파는 다시면, 문평면 등지에서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 정책 제안과 현장 모니터링 활동 등을 수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활성화 정책 방향 제안', '여량 강화를 위한 교육·간담회·회의 참석', '불편·불합리한 사항 모니터링 및 개선의견 제시', '여성 친화적 지역문화 공감대 형성 및 홍보활동' 등 활동이 예정돼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여성의 사회적 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고 여성친화도시를 만드는 데 시민참여단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주=조대봉 기자

나주시, 역사문화 자원 활용 글로컬 상권 조성

'나주 첫 만남 센터' 등

나주시가 나주읍성권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해 '살 만하고 올 만한' 글로컬 상권 조성에 나선다.

21일 나주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

는 '2025년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드 활성화'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생활권 로컬브랜드는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지자체가 차별화된 고유 자원을 활용, 살고 싶고 찾고 싶은 생활권, 경쟁력

을 갖춘 생활권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걸어서 15분 내의 생활권에 맞춤형 거점 공간을 조성하는 '특화 인프라 유형' 사업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9억원을 포함한 총 18억원을 확보했다.

이에 시는 '나주읍성 돛대, 세계로 잇다'라는 주제로 금남동, 성북동 일원 나주읍성권 역사·문화·예술 자원과 한옥 숙박 체험, 상권 먹거리를 관광객과 연결해 줄 핵심 공간인 '나주 첫 만남 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국제 교류 행사, 로컬 문화 체험, 읍성 상인 상생 프로젝트, 수문장 교대 의식, 나주읍성 옛길 투어 등 관광객 참여형 콘

텐츠 활성화 사업도 병행 추진한다.

윤병태나주시장은 "나주읍성이 보유한 매력적인 역사문화자원을 관광객들이 향유할 수 있는 핵심 공간을 조성하겠다"며 "생활인구, 관광객 유입을 통해 한옥 숙박, 상권활성화 등 원도심 지역 경제에 활력이 더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주=김용의 기자